

신하가 왕보다 더 큰 천상의 즐거움을 받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7)

수제가의 과보

옛날 수제가라는 한 장자가 있었다. 그의 창고는 금과 은 보배로 가득했고, 남종과 여종이 줄을 이루어서 모자란 바가 없었다. 어느 날, 흰 수건 하나를 못가에 걸어두었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와 수건이 국왕의 정전 앞으로 날아갔다.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접을 치게 하며 그 까닭을 묻자 신하들이 말했다.

“나라가 장차 흥성하려 하여 하늘에서 흰 수건을 내리신 것입니다.”

신하 수제가가 잠자코 말이 없자 왕은 물었다. “경은 어찌 말이 없습니까?”

수제가는 대답했다. “감히 왕을 속일 수 없어서입니다. 그것은 신의 집에서 몸을 닦는 수건으로 못가에 걸어둔 것이었는데 바람이 일어서 정전 앞에 날아 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아홉 가지 색으로 된 수레바퀴만 한 꽃이 또 하늘에서 바람이 일어나 왕의 정전 앞으로 날아왔다. 왕이 다시 신하들과 함께 접을 치게 하며 묻자 수제가가 대답했다.

“그것은 신의 집 동산에서 시들어 떨어진 꽃인데 바람에 날아왔을 뿐입니다.”

왕은 수제가에게 물었다. “경의 집이 과연 그러하단 말이요? 나는 20만 대중을 거느리고 경의 집에 가서 구경하고 싶소.”

수제가는 대답했다. “원하신다면 함께 가지지요.”

왕이 20만 대중을 거느리고 수제가의 집에 이르러서 남쪽 문으로 곧장 들어가니, 서른 명의 사내 아이들이 있었다. 왕은 수제가에게 물었다. “이들은 경의 집 아들인가?”

수제가가 말했다. “이들은 신의 집에서 문을 지키는 남종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각에 이르자, 스무 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다. 왕이 수제가에게 물었다.

“이는 경의 집 딸들인가?”

수제가는 대답했다. “이들은 신의 집에서 종각을 지키는 여종들입니다.”

더 나아가 지계문에 이르렀더니 백으로 된 은 벽과 수정으로 이루어진 땅이 있었다. 왕이 물이 흐른다고 여기고는 의심하며 나아가지 못하자, 수제가가 이내 왕을 인도하였으므로 지계문 안으로 나아갔더니, 황금으로 만든 평상과 백옥으로 만든 책상이 있었다. 수제가의 부인은 120겹으로 된 금은의 장막에 있었다. 그때 왕에게 예배하는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경의 부인은 나를 보면서 무슨 인짚음이 있기에 눈물을 흘리는가?”

부인이 대답했다. “왕의 옷에 묻은 연기 때문입니다.”

왕이 말했다. “서민은 기름을 사르고, 제후는 밀밥을 사르고,

천자는 옷을 사르므로 역시 연기가 없는데, 어쩌서 눈물이 나올 수 있는가?”

수제가는 대답했다. “신의 집에는 하나의 명월신주가 있어서 당상 위에 걸어 놓으면 밤낮이 다르지 않아 불빛이 필요 없습니다. 왕은 연기 속에서 사는 왕이므로 부인은 아주 작은 연기 기운도 견딜 수 없음을 그러한 것입니다.”

수제가의 집 앞에는 열두 겹으로 된 누각이 있어서 왕을 데리고 끝으로 올라갔는데 동쪽으로 보고 있으면 서쪽을 잊어버리고, 남쪽을 보고 있으면 북쪽을 잊어버렸다. 모르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다. 왕이 잠깐 동안은 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후원의 흐르는 샘과 목욕하는 못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먹으니 달고 맛있었다. 왕은 시간 가

러지면서 잠든 것처럼 땅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수제가는 하늘을 나는 구름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올 때는 무슨 뜻이었기에 잠든 것처럼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물려온 이유를 말하자 수제가가 물었다.

“얼어나고 싶으냐?”

사람들이 말했다. “얼어나고 싶습니다.”

수제가가 크고 거룩한 눈을 뜨고 한 번 훑어보자 40만 명 대중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의 본국으로 돌아갔다. 왕은 이내 사신을 보내어 수제가를 불러서 함께 부처님께 가서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수제가는 저의 신하인데, 전생에



삼파 · 강병호

는 줄 몰랐다. 어느 첫 수제가의 집에 머문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자 대신들이 왕에게 말했다.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수제가가 이내 금은의 값진 보물과 두껍고 얇은 비단과 무늬가 화려한 비단을 보시하자 20만 대중들은 말과 수레를 타고 일시에 궁으로 돌아갔다. 궁으로 돌아온 왕은 이내 신하들을 모아 놓고 말했다.

“수제가는 나의 신하이다. 어찌 신하의 사백이 나보다도 훨씬 더 크며, 창고의 보물이 더 많으며, 거느린 종들이 나보다 더 많을 수 있느냐? 신하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여러 신하들이 말했다. “뻗으셔야 합니다.”

왕이 이내 40만 명의 대중들과 함께 종을 치고 북을 울리면서 수제가의 집을 포위하고서 백 겹의 담장을 허물어뜨렸다. 수제가의 집 문 안에 한 역사(力士)가 있다가 손으로 금 지팡이를 붙잡고 40만 명 대중을 한 번 가리키니 한꺼번에 모두 거꾸

무슨 공덕이 있었기에 재물과 거느린 식솔들이 저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수제가는 보시한 공덕으로 천상의 즐거움을 받고 있다. 그는 옛날에 5백 명의 장사꾼 우두머리로 서 여러 장사꾼들을 데리고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빈 산 속을 가다가 한 병든 도인을 만났다. 그에게 풀집을 지어 주고 평상과 이부자리를 두텁게 깔아 주었을 뿐 아니라 물과 술과 양식을 대주고 등축을 주면서 천당의 공양을 원하였으므로 이제 그 과보를 얻은 것이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에 보시한 이가 지금의 수제가 부부이며, 그때에 병든 도인이 지금의 내 몸이다. 5백 명의 장사꾼들은 모두가 아라한도의 도를 얻었다.”(《수제가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⑦



더불어 사는 일

스마트폰 세상

요즘은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곁에 앉은 친구도 보지 않고 마치 경정이라도 하듯이 혼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스마트폰에 열중한다. 사람은 사람과 놀며 대화해야 서로가 소통하며 또 이해하게 되고 함께 즐길 수가 있는데, 어쩌다 요즘은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이 그 전 만큼 볼 수가 없다. 심지어 엄마가 우는 아이를 달랠 때도 아이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준다. 울던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게임에 몰두한다. 급한대로 아이를 달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곧바로 중독이 되기 쉽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필자 엄마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가족이 한 집에 있어도 대화하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홀로 놀고, 겨우 식사시간에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너무 쉽게 살려고만 하는 것 같다. 어려움도 경험하고 기쁜 일도 함께 하며 괴로울 때 하소연도 하며,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알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요즘 육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싸움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너무 즉흥

상이다. 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놓고 편지지 위에서 펜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헤인 스님의 불사

헤인 스님께서 제주도 약천사 주지 이취임법회에 초대했다. 스님과는 옛날부터 일타 스님의 문하에서 집안 식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나는 도반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코끝의 공기부터가 달랐다. 신선함으로 가슴이 툭 트이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는 간단한 저녁 공양을 마치고 약천사 절로 갔다. 절 입구부터 주렁주렁 열려있는 하얗게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다. 약천사,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도량이다. 도량을 보며 대작불사를 이룬 헤인 스님의 원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약천사의 대가람을 이루기까지 회주 헤인 스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스님의 나이 30대 후반 무렵 “제주도에는 큰 절이 없어 외지의 관광객들이 들릴 곳이 없으니 내가 경주 불국사와 같은 관광 사찰을 지어 참배 할 수 있는 절을 이루어 놓아야겠다.”고 했었다. 그때는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으로 웃고 말았는데 육지도 아닌 섬, 제주도엔 모든 것이 배가 아니면 비행기로 옮겨야 하는 어려움 있는데도 개미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불사를 이루어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빠른 시일 이내로 일구어놓은 대작 불사기에 불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스님께서 젊은 시절 팔만대장경각에서 백팔만 배 절을 하신 그 큰 원력과 가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일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도 어디를 가시든 새벽에 일어나면 그곳 장소에서 백팔 배를 하는 것만은 빠짐없이 하는 신심 견고 그대로임을 보게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 원을 세우면 바로 실천하는 두려움이 없는 소신으로 단양 광덕사를 지어셨고 또 제주도시내에 룬비니 동산까지 개원하게 된 것이리라. 11월 9일, 약천사 주지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새 주지는 성원 스님이

스마트폰 대신 손편지를...

스님의 원력과 불사에 고개 숙여져

적이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점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이들의 인성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스마트폰이 편리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만남의 장소마저도 어떤 건물 앞에서 시간을 정해 만났지만 지금은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마음을 표현 할 수도 있고 연락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인해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이보다 더 편리하고 고마울 수가 또 있을까 싶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할 때, 소통이란 명제를 떠올려야 할 것이다. 그 소통이라는 것이 스마트폰만으로 소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해야 하고, 말없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말해야 하고, 서로 활짝 웃는 얼굴을 보고 말해야 하고, 서로 따뜻한 손을 마주잡고 말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야 한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임이 어쩔 수 없다면 손편지를 쓰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신의 마음을 말이 아닌 글로 전달하기 위해서 생각도 많이 해야 하고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 정제된 생각을 글로 옮기다보면 사색의 깊이가 넓어지리라 생각된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살기가 힘들어진 세

부산 연꽃모임회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아미타불 성지 금강산 건봉사 12월 8일 만일염불 2차 3년기도 입재



〈금강산 건봉사 등공 기념탑〉

만일 (27년 5개월)동안 염불 수행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죽어서는 극락왕생 할 것을 기원하는 만일염불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입재 : 2013.12.08 일요일 10:00
회향 : 2016.12.07 수요일 10:00

금강산 건봉사 만일 염불 2차 3년기도 입재 안내



- 입재 : 새로 접수하신 불자님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6시 부터 새벽4시까지 철야기도로 입재 합니다.
- 장소 :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만일염불원
- 기도 동참금 : 월 3만원 (일가족 동참)
- 계좌번호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건봉사)
- 접수 : 건봉사 중무소 033)682-8100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6시 부터 만일염불 철야기도 봉행
* 버스운행: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조계사 앞 단체 버스 출발 건봉사 행 단체버스 예약(중무소 033-682-8100)
*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새로운 나! 그리고 희망! 금강산 건봉사 “괜찮아” 템플스테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723 ☎ 033)682-8100 / 팩스 033)682-5994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주지 정현 합장